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

SN.UTH

ISSUE PAPER

2021-3호

발행인 진미석 |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성남시청소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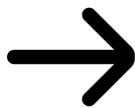
「성남시 청년패널을 통해 본 젠더갈등」

- ▶ 최근에 발생한 집게손가락 이미지와 페미니스트 교사 논란뿐 아니라 광범위한 혐오표현, 여성징병제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다양한 이슈 등에서도 남녀갈등 문제는 이어지고 있음.
- ▶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갈등지수 순위가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 중에서도 청년세대의 남녀갈등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국민일보, 2021.8.19.)
 - 청년세대에게 남녀(성-젠더)갈등은 이념-계층빈부보다 더 큰 갈등요소로 나타남. (리얼미터, 2018.12.17.)
- ▶ 성남시 청소년 - 청년의 '남녀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남 청소년 - 청년 온라인패널 조사를 실시하여 남녀갈등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 ▶ 조사방법은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총 514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남성은 207명(40.3%), 여성은 307명(59.7%)임.
- ▶ 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남녀갈등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미디어, SNS 등을 응답했고, 해결방안으로는 교육과 대화, 정책, 그리고 미디어의 보도자제 등의 순으로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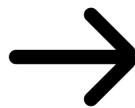
성남시청소년재단 증거기반 청소년-청년 정책 지원 시스템



성남 청소년-청년
온라인패널조사



청소년-청년 공론장
성남 청-청포럼



분석보고서 발간
SN.UTH 이슈페이퍼



청소년-청년
정책 반영

※ 성남 청소년 - 청년 온라인패널 : 성남 청소년과 청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집된 여론조사의 참여자들로서 성남에 거주 또는 활동(재학, 재직 등)하는 만 15~34세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되었음. 2020년 청소년-청년 일 경험, 참여인식조사를 비롯해 2021년 남녀갈등,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모바일 기반의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함. 현재 1,105명(9월 현재)이 온라인패널로 가입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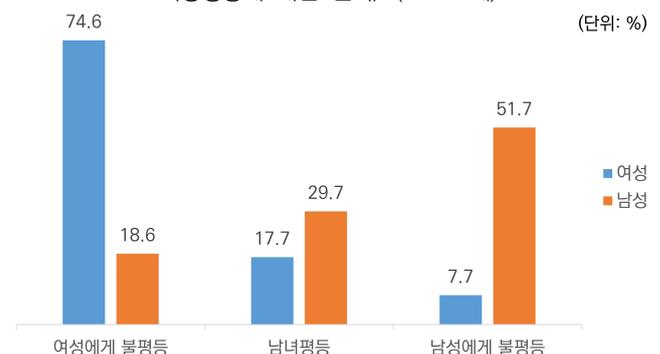
청년들이 느끼는 남녀갈등? 우리도 피곤해!

- 남녀갈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차별'과 '페미'가 가장 많았음. 또한 우리사회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의 74.6%, 남성의 51.7%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답변한 반면, 남성의 18.6%, 여성의 7.7%만이 상대 성별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응답

〈워드클라우드 보는 남녀갈등 키워드〉



〈성평등에 대한 인식〉 (19~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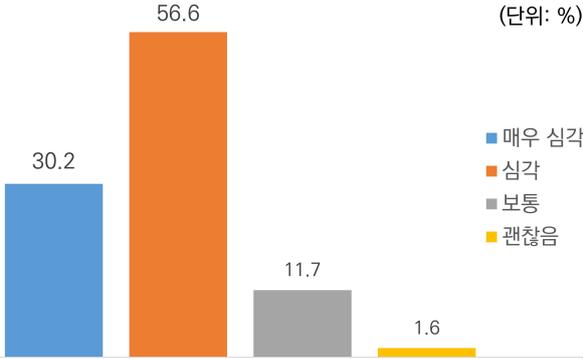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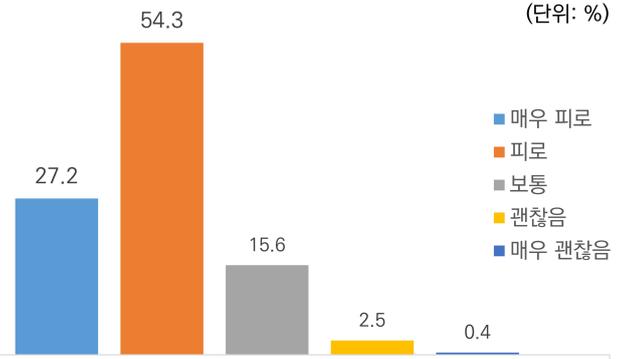
SN.UTH 이슈 페이퍼

- 남녀갈등 이슈에 대한 질문에 성남시 청소년 - 청년 중 86.8%는 현재의 남녀갈등 이슈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남녀갈등 문제에 대해 81.5%가 피로도를 느끼고 있었음. 성별 또는 연령별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당수의 청소년 - 청년이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각종 매체 등에서 '페미', '이대남', '이대녀', '남혐/여혐'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남녀갈등을 주도하는 것이 청소년 - 청년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 - 청년은 이 문제에 대해 오히려 많은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음.

〈남녀갈등이슈 어떻게 느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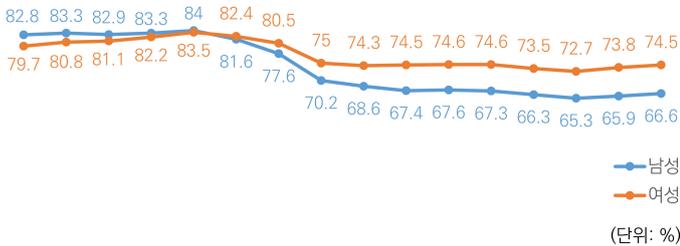
〈남녀갈등 이슈에 대한 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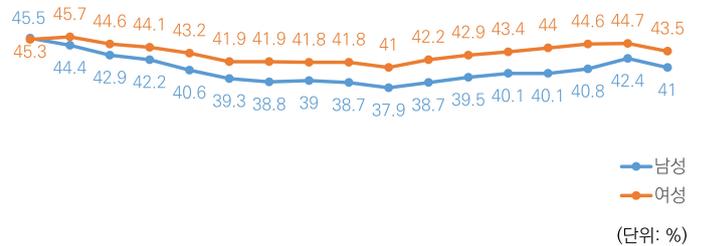
남녀갈등의 원인, 높아진 교육 때문어?

- 과거의 남녀갈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가정·학교·직장 등에서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음.
- 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나 법·제도적인 성차별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 고정적인 성 역할에 얽매이지 않으며, 대학진학률과 남녀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남.
- 이 때문에 청년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며, 경쟁자로서 서로를 인식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고등학교의 대학교 진학률〉 (2004~2019)



〈15~29세 고용률〉 (200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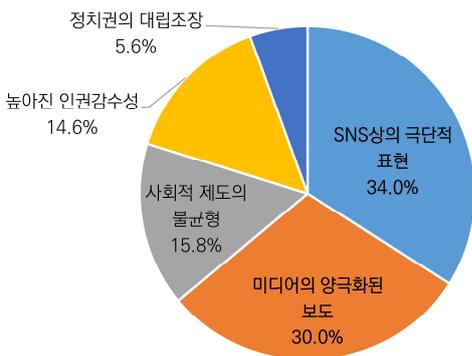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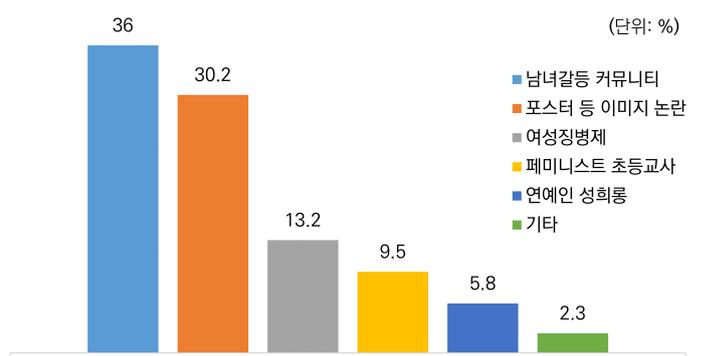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그러나 실제 성남 청소년 - 청년 온라인패널 조사에서는 현재 남녀갈등의 문제는 사회적 제도의 불균형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극단적인 표현이나 미디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등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남녀갈등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녀갈등 커뮤니티, 포스터 등 이미지 논란과 같이 SNS, 미디어 등에서 많이 다루어진 이슈를 주로 응답하고 있음.

〈남녀갈등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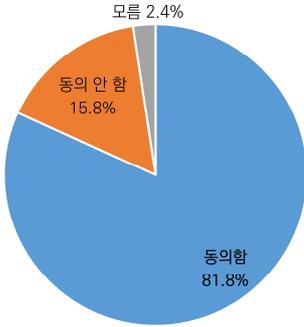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남녀갈등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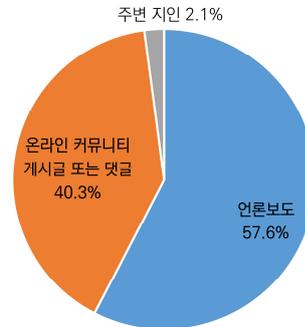


- 성남 청소년 - 청년 온라인패널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최근 '안산 선수 관련 논란'에 대한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10명 중 8명 이상은 언론이 논란을 부추겼고, 이러한 논란을 언론 보도(57.6%)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40.3%)으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안산 선수 관련 논란, 언론이 부추겼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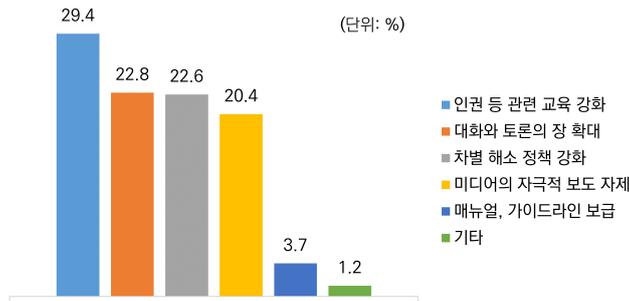
〈안산 선수 관련 논란에 대한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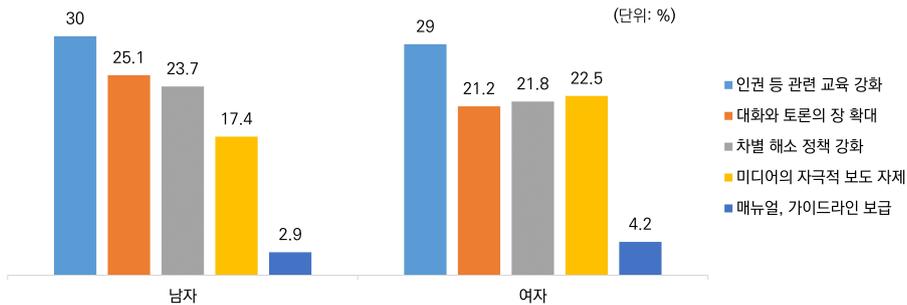
출처 : KBS 공영미디어연구소(2021), 『젠더갈등 관련 설문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6738>)

남녀갈등 해결, 어떻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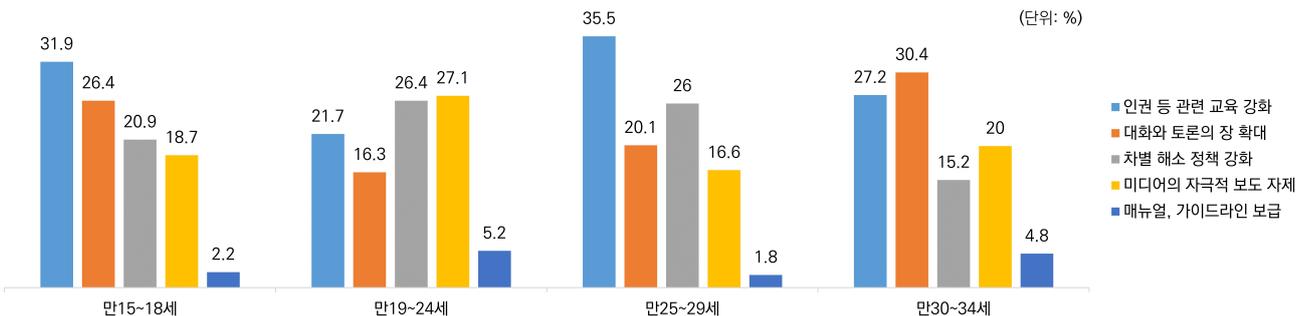
- 성남 청소년 - 청년 온라인패널 조사에서는, 남녀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권 등 관련교육 강화(29.4%), 대화와 토론의 장 확대(22.8%), 차별해소 정책 강화(22.6%), 미디어의 자극적 보도 자제(20.4%) 등을 들고 있음.



- 해결방안에 대한 남녀 성별 간 응답은 크게 다르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 자제를 남녀갈등 해결책으로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응답에서는 만 15~18세는 인권 등 관련교육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19~24세는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자제, 만 25~29세는 인권 등 관련 교육, 만 30~34세는 대화와 토론의 장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중고교 재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은 만 15~18세, 만 25~29세는 경험을 통해 교육 중심의 해결방안을, 주로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세대는 SNS, 뉴스 등의 영향으로 미디어 관련을, 만 30대 이상에서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성남 청소년-청년, 남녀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 성남 청소년-청년 온라인패널 남녀 응답자 모두 남녀갈등 해결방안으로 교육, 공론의 장 마련, 정책적인 체계, 미디어의 자극적 보도자제와 이에 대한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말함.
-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2021)조사 결과에서도 혐오차별 확산을 막으려면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자제(90.3%), 학교 내 혐오차별 예방교육확대(89.9%),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수립(86%)등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음.

■ 나를 아는 힘이 타인을 이해하는 힘

- 남녀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방향으로 지난 7월 개최된 [2021성남 청-청 포럼] '남녀갈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참여한 프로젝트 이든쌤 팀은 성평등 교육 이전에 '나'를 이해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교사 등 교육을 맡고 있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함.
- 같은 포럼에 참여한 김지영 교수(서울시립대)는 교육 만능주의를 주의하며, 앞으로의 교육은 개개인을 중심으로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
- 개인의 성인지 관점이 혼자 습득한 것이 아닌 환경에 의함을 고려하고 일괄적인 교육이 아닌 또래, 지역, 다양한 세대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본 후 상대를 바라본다면 갈등이 아닌 이해로 풀어갈 수 있을 것임.

[성남 청소년-청년 온라인패널 유혜인]

"성평등에 국가가 개입해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녀갈등의 모든 경우의 수를 한가지의 잣대로 결정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의 남녀갈등은 한 가지만의 잣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법령만 수정하는 것처럼 말이지. 생각하는 것도 자라온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기

- 젠더갈등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사의 자율적인 정화 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이슈가 되었던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폭력의 핵심적 역할은 바로 언론이었음. 맥락을 무시한 채 SNS 상의 댓글 한 줄만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비난이 계속 기사화되며 논란이 됨. (KBS, 2021.8.28.)
- 1인 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가져 뉴스를 생산·유통하는 것과 집단의 양극화 현상 등이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강력한 법적대응체계나 자율규제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매체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오대영, 2021 성남 청-청 포럼, 2021.7.29.)

[성남 청소년-청년 온라인패널 우민호]

"예전에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이라도 소통을 했겠지만 지금은 유튜브 같은 매체의 알고리즘을 통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보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군대와 육아인데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희생하고 있는 것인데, 매체에서 희화화 되고 상호 간의 존중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남녀갈등의 본질, 공정함

- 성남 청소년-청년이 생각하는 남녀갈등 키워드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차별'인데 남녀갈등에 대한 논의에 있어 먼저 볼 것은 '평등'과 '공정'에 대한 개념임. '평등'은 대체로 그 내용을 말하며, '공정'은 형식과 절차에 관한 것임. 요즘 청년이 생각하는 남녀갈등은 성평등이 아닌 형식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인식함. (오재호, 2021 성남 청-청 포럼, 2021.7.29.)
- 이에 대한 청년대상의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이념, 지역, 종교 갈등을 최소화하듯 남녀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회의 갈등은 또 다른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함. 맥락 없는 비판이 아닌 '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포용으로 또 다른 혐오가 유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젠더 갈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재단은 혐오표현이 무엇이며, 대응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재 재단에는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관련(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이 존재함.
- 이러한 사업 외에도 자체평가를 통해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점과 공정성의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함.
- 또한 공적인 기관으로서 남녀갈등이나 혐오 등이 개입되거나 지원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공론장, 캠페인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과 민주적 설득을 위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함.
-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인정하고,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의 개별 경험과 환경에 대한 다양성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